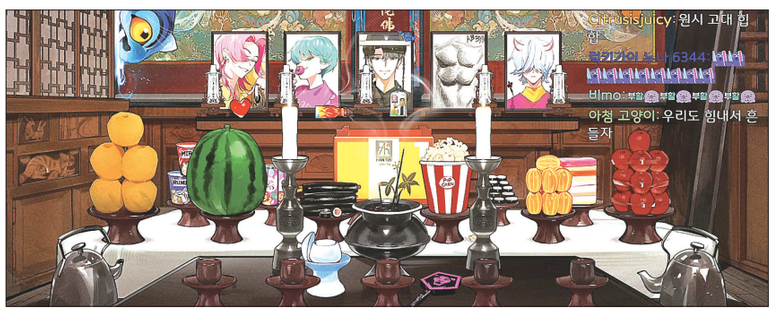
‘서브컬처’로 불교 전법 확장될 수 있을까

서브컬처 정점 ‘버튜버’ 佛法 스님 데뷔가 남긴 것들

불법 스님 첫 방송 ‘인기폭발’
실존 않는 인물에 대중 열광
그들에겐 주목할 서사들 담겨

‘서브컬처 팬덤’, 버튜버 강점
팬덤층 ‘화력 · 덕력’에 주목을
“시대 맞는 포교로 인식해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악역 ‘사자 보이즈’ 천도재 모습. 스님 버튜버 ‘불법 스님’이 네이버 플랫폼 ‘치지직’에서 방송을 통해 봉행했다. 시청자 댓글창의 반응이 뜨겁다.
사진=불법 스님 라이브 방송 캡쳐

낯섦과 놀라움. 7월 9일 네이버가 운영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치지직’에서 파일럿 방송으로 데뷔한 스님 버츄얼 유튜버(이하 버튜버) ‘불법 스님’을 접한 뒤 적지 않을 불자들이 느꼈을 반응일 것이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진짜’ 스님이 버튜버 ‘불법 스님’으로 가상공간인 ‘치직산 의문사(疑問寺)’에서 진행한 첫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악역 ‘사자 보이즈’ 멤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봉행됐다.

방송 전부터 엑스(구 트위터)에 알려지면서 불법 스님의 채널 팔로우는 5000여 명에 달했고, 방송 뒤에는 그 수가 1만명까지 늘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에서는 최대 4200여 명이 동시접속해 시청했으며, 마지막까지도 3000여 명을 유지했다.

서브컬처 산업의 정점 ‘버튜버’

가상의 스님이 가상 도량에서 연 천도법회에 4000명의 사람들이 몰려가 열광하는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브컬처(Subculture)’와 그 안에서 파생된 산업인 ‘버튜버’를 알아야 한다.

서브컬처는 주류 문화와 구별되는 소집단의 독자적 문화양식을 말하며, 애니메이션·게임·버튜버·코스튬 플레이(코스프레)·밈(meme) 문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1990~2010년대 서브컬처가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좋아하는 ‘오타쿠 문화’ 정도로 인식되던 것과는 달리, 현재 디지털 세대에게 서브컬처는 ‘공감 기반의 놀이문화’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중 ‘버튜버’는 최근 가장 뜨겁고 새로운 서브컬처 산업의 정점으로 부상 중이다. 2016년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버튜버라는 개념을 대중화한 인물은 ‘키즈나 아이’로, 그녀는 3D모션 캡쳐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 버튜버’로 활동했다. 데뷔 1년 만에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일본관광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만큼 인기를 얻자, 전문 기획사들이 생겨났고 빠르게 산업화됐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버튜버는 스트리밍 시장의 판도를 바꿨고, 관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버튜버는 개인 방송인에서 지적재산권(IP) 콘텐츠를 가진 캐릭터가 됐다.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팬덤’이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형성되는 팬덤은 굿즈와 협업 상품 등 부가 산업의 소비로 이어진다. 최근 한국에서도 ‘플레이브’, ‘이세계아이돌’ 같은 버튜버 아이돌이 활약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서브컬처 팬덤을 불교로

스님 버튜버 불법 스님의 출현은 전법 영역을 서브컬처로 확장할 수 있음을 가늠하는 도전이자 실험이다. 실제 불법 스님이 보여준 ‘사자보이즈 천도재’는 전통 불교의식을 현대적 콘텐츠로 재해석해 서브컬처 팬덤에게 소개한 사례다. 버튜버는 매체일 뿐이며, 그 안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불법(佛法)’임을 알린 것이기도 하다.

서브컬처 팬덤들은 실존하지 않는 존재인 버튜버에게 위로받고 힐링하며 함께 울고 웃는다. 버튜버는 이들에게 모니터 속 가상의 인물이 아닌 감정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도반이며, 연결된 세상이다. 이 같은 서브컬처 팬덤은 ‘화력’과 ‘덕력’으로 대변되는 응집력과 콘텐츠 몰입도가 강한 만큼 이들의 불교 유입은 내부 결속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장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새길 때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변상도를 그려 내용을 전했다. 오늘날의 서브컬처는 이와 같은 개념일 것”이라며 “오래전 스님들이 탱화를 그리고 경판을 새겼듯, 현대의 스님 버튜버는 불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낮아진 장벽으로 불교를 만난 사람들이 수행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이는 좋은 방편”이라고 평가했다.

“올 여름 봉녕사서 ‘나’ 만나는 수행을”

7월 26일~8월 2일 ‘여성출가학교’
7월 23일까지 신청…20명 모집
8월 16~17일 ‘팔관재계 수계법회’

계·정·혜 삼학의 수행가풍을 이어온 수도권 대표 비구니 교육도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나’를 찾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여름 휴가 기간인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4기 여성출가학교’다. 봉녕사에 머물며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체험하고, 출가 수행의 가치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봉녕사 여성출가학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첫’ 출가학교로, 출가자 감소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4기의 주제는 ‘소리로 참나를 만나는 선명상’이다. 고불식, 삼귀의·오계 수지를 시작으로 발우공양, 조석예불, 사시불공, 운력, 실참수행, 수행점검 등 비구니 승가의 생활 전반은 물론 붓다볼(싱잉볼)을 활용한 선명상 체험으로 소리를 듣고 있는 ‘나’를 자각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또 부처님 생애와 계율, 기초 교리 등을 배우는 교리수업과 자비수참, 일보일배 등 신심을 북돋을 수 있는 수행도 체험한다.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특강도 포함돼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삭발식도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공동생활이 가능한 17~60세 여성 20명이며, 참가비는 40만원이다. 7월 23일까지 봉녕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룻낮 하룻밤 출가수행으로 ‘참된 나’를 만나 해탈의 인연을 맺는 뜻깊은 수행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8월 16~17일, 봉녕사에서는 8가지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하루를 보내는 ‘제2회 팔관재계 수행법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팔관재계 수계, 선명상, 우바새계경 독송, 대적광전 조석예불, 생명의 소리 108배, 공덕행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만족을 알고 베풀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며 △지혜로 바른 마음을 지키고 △장신구와 화장을 삼가며 △노래·춤·사치스러운 자리를 멀리하고 △오후 불식을 실천하는 등 팔관재계를 따르게 된다.

봉녕사는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정기 법회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앞선 5월 제1회 법회는 봉녕사 관음회원과 신도회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됐지만, 제2회 법회부터는 오계를 수지한 재가불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참가 대상은 오계를 수지한 우바새(남) 20명, 우바이(여)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오계를 수지하지 않은 사람은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봉녕사 오계수계식에 참여 후 동참 가능하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개인 침구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봉녕사 종무소(031-242-5412)로 하면된다.

봉녕사는 “하룻낮 하룻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헐떡이는 마음을 쉬고 청정하고 간소한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의 방향과 습관, 삶의 질까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반복되는 SPC삼립 사망사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사노위, 7월 5일 SPC 앞서 49재
허영인 회장·경영진 퇴진 촉구도
“기억 추모해야 현장도 바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7월 5일 서울 SPC본사 앞에서 ‘SPC삼립 산재 사망사고 49재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49재는 조계종 사회노동위,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의 3대 종교계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날 추도재에 함께한 이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세상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또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며 3년 사이 3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만든 SPC그룹 허영인 회장 및 경영진의 법적 책임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기도와 발언 후 동참자들은 고인의 위패를 들고 SPC본사 건물을 한 바퀴 돌았다. 정문 앞에 모두 모인 동참자들은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열창 한 후 위패를 소지하며 추모재를 마무리했다. 임은호 기자

25돌 민추본 “현재 고민 속 미래 준비”

7월 10일, 전법회관서 기념특강 및 집담회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기념 특강 및 집담회를 개최하고 남북 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추본은 7월 10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 회의실에서 ‘민추본 창립 25주년 기념 특강 및 집담회’를 진행했다. 민추본 90차 월례강좌이기도 한 이번 자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남북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혜안을 모으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불교교류의 방향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은 ‘혼돈의 국제정서 속 동북아 평화협력 및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에는 김진환 서울대 연구원의 사회로 집담회가 진행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활동 범위가 위축됐으나 한계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실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종단을 대표하는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활동 기구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25년 동호불교 7월 백중 물품 행사 품목

물품 소진시 마감 됩니다 ※ 택배비도 포함된 가격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조상옷
- 쟈가드 100벌 이상 270,000원
- 천연펄프 100벌 이상 260,000원
- 추가옵션 (100개이상)
- 버선 300원
- 양말 350원
-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 속옷 세트 100개 이상 130,000원
-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20,000원
-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 돈그림 짚신 100족 1BOX (1세트 3족) 210,000원

종이지옷(봉투)
- 지옷 200개 1BOX 150,000원
- 수자 200개 1BOX 130,000원
- 동자선녀 200개 1BOX 150,000원

수입양초
- 밀대 50개 60,000원
- 원백 20개 70,000원
- 돈타래 40개 70,000원

수입홀초
- 원백 20개 75,000원
- 돈타래 4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수입
- 7일초 20개 60,000원
- 5일초 24개 60,000원
- 3일초 40개 65,000원
- 1일초 90개 95,000원
- 15일초 12개 90,000원
- 30일초 4개 150,000원

국산초
- 밀대 50개 60,000원
- 원백 20개 70,000원
- 돈타래 40개 70,000원

국산홀초
- 원백 20개 75,000원
- 등신불 25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최상급 -국산(흰색)
- 7일초 20개 90,000원
- 5일초 24개 95,000원
- 3일초 40개 95,000원

파라핀 1BOX(1.8L/12개) 65,000원

백중 행사 용품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달력 7월 2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혜택 받아가세요’
- 오색종이 100개 50,000원
- 삼베 50개 100,000원
- 삼베옷 (모자포함) 20개 120,000원
- 군웅 50개 100,000원
- 소창 50개 100,000원
- 길배-대 10개 150,000원
- 영가만원등 100개 230,000원
- 오색길배 (천왕길배) 30개 135,000원
- 비석위패 (향나무) 100개 270,000원

백중행사 기도 접수 받습니다-실사 25,000원(90X45)

보시용품 대량 구매 준비끝!!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7치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예금주 :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401-1